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박 은 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 요 약 》

시민성(citizenship)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사회참여를 논하려면 사회관계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관계 이론화 추구의 핵심 개념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도입하여 시민성의 의미를 재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의 정도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정도는 매우 낮았으며,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는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갖는 상보적인 개념이라면 사회적 신뢰를 높여줄 수 있는 교과 내용의 강화와 사회관계를 강조하는 실천적인 사회참여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제어 : 시민성, 사회자본, 사회적 신뢰, 사회참여, 시민성 교육

I. 서론

비판적 관점의 시민성 교육은 시민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강조한다. 즉, 비판적 사고, 사회향상에 적극 참여하려는 동기 고취,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확보를 시민성 교육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시민성의 궁극적 지향점을 사회참여에 둔다. Poster나 Kruger(1990) 역시 “시민성은 공허한 지식과 무관하다. 또한 조직이나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그것은 단지 참여와 관련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시민성의 핵심이 참여에 있음을 밝힌다(이승중, 2001, 재인용). 이외에 뉴만(Newman, 1977), 앵글과 오초아(Engle & Ochoa, 1986), Butts(1988), 세비지와 암스트롱(Savage & Armstrong, 1996) 등 많은 외국의 사회과 교육학자들 역시 시민성 교육 내용으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0년대 이후 이승종(1997; 2001), 손봉호(1999), 최현섭(1999) 등이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사회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사회화의 측면을 강조해 오던 기존의 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교육의 개념¹⁾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처럼 시민성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사회참여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²⁾. 왜냐하면 참여는 공공문제에 대한 의견 투입활동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활동은 당연히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이승종, 2001). 사회관계 측면에서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통된 관심을 보이는 개념 중 하나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자본은 다른 자본과는 달리 사람들 간의 관계 구조에 내재하여 실제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물질적 혹은 상징적 교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정서적 지지, 정보 및 물질 자원의 교환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규범, 기대,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Lee & Croninger, 1996)

그렇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과 시민성 특히 사회참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시민성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양식 및 생활양식으로서 제도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을 포괄한 개념으로³⁾ 본다면, 시민성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은 사회적 정착제 역할을 하며(Newton 1999).⁴⁾ 사회문제 발생 빈도 감소 요인(Brehm & Rahn 1997; Putnam 1995)), 가치관, 규범, 목적의 공유를 통한 결속감 강화(박찬웅, 1999) 등 사회발전을 위한 협

1) 정치적 참여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 의미로 공적문제에의 참여문제를 강조한다.

2) 듀이(Dewey)는 민주사회를 연합된 삶의 형태로 이해하여 시민성을 사회공동체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질 혹은 조건 및 구체적인 행위라고 지적하여(Parker, 1996), 시민성이란 실제의 삶에서 사회적 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민이 가져야 하는 조건으로 규정한다. 즉, 인간의 사회적 속성과 사회적 행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시민성을 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미국 사회과 교육협의회(NCSS) 역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로 시민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동체의 사건과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나 자신과 이웃 공동체에 관하여 걱정하기, 개인적 재능과 기능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기, 자발적 행동,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교육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투표하기, 봉사와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제시하고 있다(<http://www.skypoint.com/members/dennyj/Values1st/citizenship.html>)

4) 사회적 의무감 또는 사회의식 없이 사익과 기대를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을 공동의 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5) 사회자본이 정부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촉진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며, 정치안정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소년 범죄, 이혼율, 미혼모, 학교자퇴 등 여러 사회문제의 발생

동적이고 집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임과 동시에 다차원적 개념⁶⁾이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한 사회의 시민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퍼트남(Putnam)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시민 참여의 전통에 기초하여 이탈리아의 지역 정보의 제도적 성취를 분석한 『사회자본과 민주주의』를 출판하였다. 또한 1980년과 1993년 미국 사회에서 혼자 볼링을 즐기는 사람(bowling alone)의 급격한 숫자의 증가를 통해⁷⁾ 조직생활의 퇴락을 설명하면서 사회에 대한 신뢰 감소, 미국 민주주의의 현황 그리고 미국 민주시민의 위기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2003)에서 ‘사회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를 통해 생애능력, 사회자본, 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개념화하였으며,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성은 한 국가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성이 본격화, 구체화 되어 발달되는 시기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⁸⁾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성과의 관계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로스와 디네슨(Gross & Dynneson, 1991)이 지적한 것처럼 중·고등학교 시기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충화된 시민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방식과 가치규범을 토대로 하는 기본적 시민성과 연령에 적합한 전문적인 시민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시기이므로 사회관계 측면에서 시민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II .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후기 마르크스주의자 부르디외(Bourdieu, 1986)에 의해 선도되었는데, 부르디외(Bourdieu)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되었건 제도화되지 않았건 간에 상호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통합’으로 정의 내린다. 한편, 미국의 사회학자 콜맨(Coleman, 1988)은 사회자본을 구성원들 간의 관계 구조 속에 존재하는 특정 행위를 촉진하는 연결망

빈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 6) 콜맨은 의무와 기대, 사회조직 내에 존재하는 신용, 유용한 정보교환, 지역사회 내의 규범과 제재, 권위관계, 사회조직, 의도적 조직들을 사회자본의 형태로 들고 있다(이정선, 2003)
- 7) 퍼트남은 단체생활의 감소는 사회에 대한 신뢰 감소를 동반하며, 개인이 고립화되면서 사회구성원 각각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극적으로 감소하였다고 설명한다.
- 8) Gross & Dynneson은 중고등학교 시기가 전문적·사회적 시민성이 개발된다고 제시하였으며, Newman (1989), Parker(1989), Wade & Saxe(1996), 손봉호(1998) 등은 사회적 시민성 함양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으로 보고, 의무와 기대, 신뢰나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이면 어느 집단에나 존재한다고 주장한 반면, 퍼트남(Putnam, 1993)은 사회 자본을 협력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생활의 특질로 규정하고 있다.⁹⁾

민주주의와 관련한 사회 자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한 민주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Coleman, 1988) 그리고 시민사회의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Putnam, 1993)으로 사회 자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사회 자본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문화적 토대로,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성격을 구성하는 근간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근간들을 행동으로 구체화하여 실제 사회참여의 형태로 현실화시키므로 민주 공동체라는 사회구조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개인들의 특정한 행동양식인 시민성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사회 자본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자본의 어떤 요소가 시민성과 관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자본의 핵심적 요소인 신뢰와 시민성의 궁극적인 요소인 사회참여는 깊은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신뢰란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여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협동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박찬웅, 1999) 사회를 결속시키는 힘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퍼트남은 지역사회나 조직 생활에 대한 참여의 강도, 투표와 같은 정치참여나 관심,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친구관계 같은 비형식적 사교성, 대인간의 신뢰를 지표로 측정하여 사회적 신뢰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의 사회적, 정치적 유용성이 명확해졌음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주민 간의 규범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정책 수행의 결과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Putnam, 1995a) 공공생활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Putnam, 1995b). 박스 역시 퍼트남과 비슷한 관점에서 시민 거버넌스(civic governance)라는 개념을 통해 주민 참여가 사회적 혁신의 동인이 됨을 밝히고 거버넌스 증진을 위해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9) 이외 사회자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으로는 연결망과 개인의 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버트(Burt)의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에 대한 논의, 그라노베터(Granovetter)의 약한 관계(weak ties)의 역할에 대한 논의 그리고 린(Lin)의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으로서의 연결망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이외 집단 내부의 성원들을 묶어주는 결속적인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의 기능과 집단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교량적인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기능으로 구분하기도 하며(Briggs, Brenner & Saegert, 1999), 관계적 형태의 사회자본(relational social capital)과 제도적 형태의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거나(Krishna, 2000), 구조적 형태의 사회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과 인지적 형태의 사회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을 구분하기도 한다(Uphoff, 2000).

있다.(Box, 1998) 후쿠야마는 자발적인 결사체를 조직, 유지, 활성화하는 능력과 그 문화적 기반으로서의 신뢰를 사회자본으로 보고,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능력과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제시하였다(김해성, 1998, 재인용). 한편, 정치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구이긴 하지만 Milbrath와 Goel(1977)에 따르면, 정치적 관심이 높고 정치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정부 정책이나 관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시민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가 높다는 결과 보고가 있다.

사회자본과 시민성과 관련하여 신뢰와 사회참여를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자. 영국 국가 통계청의 경우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한 사회자본의 측정 차원으로 서 시민적 사회참여(civic participation),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지역사회의 구조나 제도 수준(structures of institutions),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체제(social network, support), 신뢰, 사회적 응집성(trust, social cohesion)을 제시하고 있다(ONS, 2002). 이중 사회참여와 신뢰의 주요 측정 내용과 시민의식과의 관련요소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사회자본의 관점에서의 시민의식 측정을 위한 매트릭스

사회자본 측정 요소	측정 내용	시민의식 및 관련요소
시민적 사회참여	지역사회에서의 참여활동 및 강도	●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장애요인	○
	정치 참여활동(정당, 투표 참여)	●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이웃에 대한 친밀감	
신뢰, 사회적 응집성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정보 수준	○
	한 지역의 거주기간	
	공공 및 서비스제도에 대한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	●
	정치구조에 대한 신뢰	●
	가치 공유에 대한 인식 등	●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시민의식을 직접 측정하는 요소)

미국의 국가교육표준평가위원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 Achievement)는 28개국 14세 청소년의 시민의식 측정을 위해 민주주의/시민성, 국가 정체성/지역 및 국제관계, 사회통합/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영역을 기본 틀로 측정도구에 포함될 문항의 종류를 내용에 관한 지식 측정, 시민 혹은 정치적 내용을 담은 매체를 해석하는 기

능 측정,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측정,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과 같은 태도 측정,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정치 참여행동 측정으로 유형화하여 평가하였다. 이 중 사회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한 부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나 믿음 정도와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정치에 대한 참여행동이다(Torney-Purta, 2001).

한국교육개발원(2003)은 국가정체성(애국심, 국적, 국기 및 국가에 대한 존경 등), 신뢰 및 가치 공유(정부기관, 공직자, 지역 사회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 기회균등, 민주적 가치 및 다양성 등), 권리·책임의식(법 및 공공질서의식, 사회규범 준수, 도덕성 및 양심), 참여의식(보수적 참여로써 정당 참여, 투표와 사회 변혁적 참여로써 저항의식, 환경활동, 지역사회 참여로써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봉사활동, 환경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규범(민주적 원리와 가치), 사회적 신뢰, 사회참여를 사회자본 측면에서 시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뢰할수록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신뢰가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한 요소로 기능하며, 참여를 통해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신뢰와 참여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참여 활동 파악을 통해 사회자본과 시민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를 본 연구의 측정 요소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신뢰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넷째, 분석 결과가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 교육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과제 실행을 위해 2004년 5월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교수준, 거주 지역, 성별이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하여 학교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¹⁰⁾. 다음 <표 2>는 학교수준, 거주 지역,

10) 학교수준, 거주 지역, 성별을 모두 변수로 사용하려 수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어 설문을 실시하

성별로 설문 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단위 : 명(%)

학교수준		거주 지역		성별	
중	고	강남	강북	남	여
220 (51.9)	204 (48.1)	196 (46.2)	228 (53.8)	204 (48.1)	220 (51.9)

설문은 1999년과 2001년 세계 각국의 14세 학생의 시민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 Achievement)가 사용한 조사도구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IEA는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시민단체,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학교 및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고, 시민참여는 정치참여¹¹⁾(정당참여, 사회적·정치적 관심에 대한 신문기사 쓰기, 지역의 대표자 되기)와 사회운동참여(청원서 서명, 비폭력 항의 집회 참여 및 항의문 작성, 항의의 형태로 교통을 차단하는 것, 사회적 목적으로 기금 모금 등)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여 설문을 재구성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음을 반영하여 정치참여는 배제하고 사회참여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5점 척도로, 사회참여는 2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다음의 <표 3>은 구체적인 설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였으나, 설문 결과 거주 지역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학교수준만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정도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 11)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치나 규범이 사회자본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정치참여와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사회자본의 지표로 사용되는 태도 변수는 정치관심, 정치지식, 정부신뢰, 정치효능, 시민의 의무감 등이 있다(Milbrath & Goel, 1977).

〈표 3〉 설문지 구성 내용

* 다음의 제도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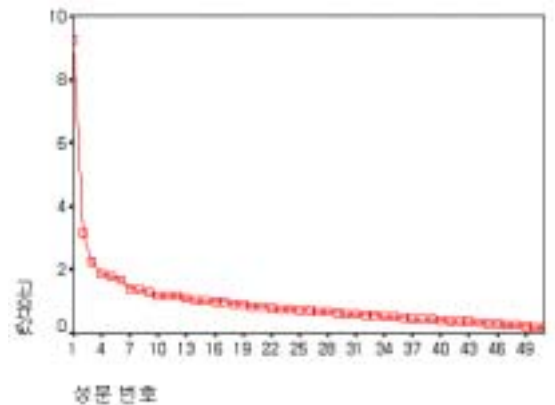
		(1)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2) 약간 신뢰한다	(3) 대부분 신뢰한다	(4)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5) 잘 모르겠다
1	중앙 정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법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경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텔레비전 뉴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신문에 나오는 뉴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정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국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하시오.

		(1) 참여해 본 적이 있다.	(2) 참여해 보지 않았다.
8	발렌타인 데이 페지, 호주제 페지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서명 받기 활동에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광화문 촛불 시위 등 비폭력적 항의 시위나 집회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터넷상 토론방의 참여(예 : 리플 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신문 독자 투고, 방송의 시사 토론에 전화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환경단체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인권단체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지역사회 모임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설문 결과 수집된 데이터는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F 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elation)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정도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학교수준이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정도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차이에 있어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자료를 단순화하여 관계있는 것들끼리 묶어 차이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한다.¹²⁾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 중 분석에 사용할 요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scree plot이 판단의 도움을 제공한다. 이때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scree plot상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간극(natural break)의 소재와 연구자의 이론적 관심 그리고 요인의 적절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 1]의 scree plot에 의하면, 하나의 지배적인 요인이 있으며(고유값=9.23),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요인의 중요성도 무시하지 못한다(고유값=3.56). 세 번째 요인부터는 작은 차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요인의 일관된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중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요인을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1] 요인분석 결과 scree plot의 예

IV. 분석 결과

1. 중·고등학생의 정부 관련 기관과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 정도

12)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변수들로 측정된 자료를 소수의 차원으로 묶어서 새로운 변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묶여서 요인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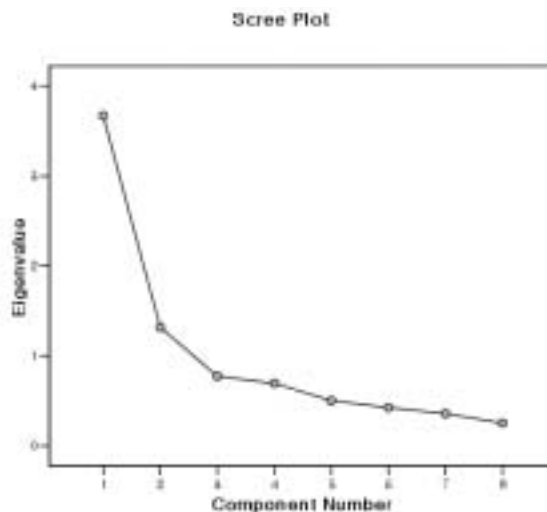
〈표 4〉 중·고등학생의 정부기관 및 언론에 대한 신뢰 정도

	Mean	Std. Deviation
중앙정부	1.40	1.18
법원	1.91	1.25
경찰	2.00	1.19
tv뉴스	2.50	1.04
신문	2.27	1.13
인터넷	1.91	1.19
정당	1.19	1.05
국회	1.19	1.07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신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정부, 법원, 경찰, TV 뉴스, 신문, 인터넷 뉴스, 정당, 국회의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4>는 중·고등학생의 정부기관 및 언론에 대한 신뢰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것이다. 그러나 각 항목별 신뢰도 차이의 뚜렷한 경향성 혹은 체계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8개의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여 scree plot을 사용하여 <표 5>와 같이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5〉 사회적신뢰 요인분석

	Component	
	1	2
중앙정부	.756	.124
법원	.759	.260
경찰	.651	.323
tv뉴스	.153	.876
신문	.152	.880
인터넷	.253	.622
정당	.758	.138
국회	.765	.125



요인 1은 중앙정부, 법원, 경찰, 정당, 국회, 요인 2는 tv뉴스, 신문, 인터넷언론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요인 1은 국가 정치를 담당하는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로, 요인 2는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로 재명명하였다. 중, 고등학교 학생의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와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정부 관련 기관과 언론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뢰도

학교수준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F	Sig
요인1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	중학교	1.51	.97	.06	24.48	.00
	고등학교	1.58	.73	.05		
요인2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	중학교	2.19	1.01	.06	14.65	.00
	고등학교	2.28	.7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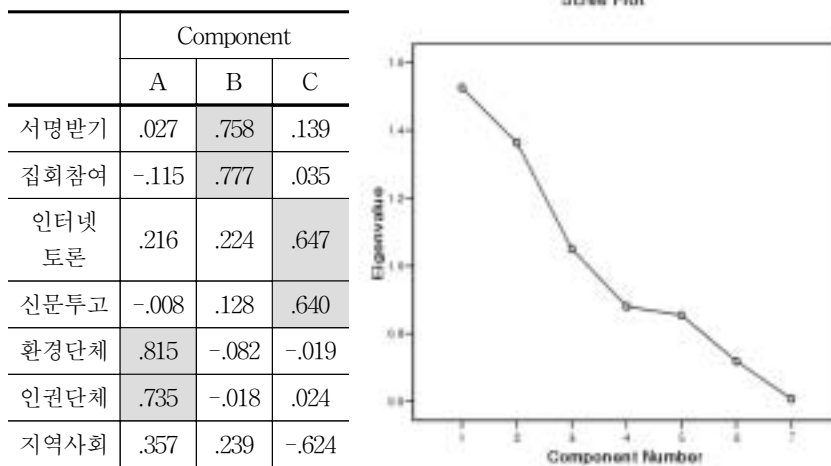
정부 관련 기관과 언론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언론에 대한 불신 경향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소집단의 사적 신뢰는 유지, 강화되어 왔지만,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는 약화, 소멸되어 왔다는 김해성(1998)의 연구결과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 관련 기관보다는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영상매체 혹은 인터넷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한 세대이므로, 언론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수준이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F=24.48$, sig .00)와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F=14.65$, sig .00) 차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와 언론매체 신뢰 모두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¹³⁾.

- 13)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결과에도 나타난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측정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훌륭한 시민의 자질로 꼽고 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또래집단, 부모, 교사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교사 혹은 또래집단과 토론하는 경우보다는 부모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얘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생활과정보다는 가정 생활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항들은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간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론의 기회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의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 재미있게 발견되는 현상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매체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토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가질수록 매체에서 보도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부모, 또래 집단, 교사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성에 대한 지식적 측면에서 우

2.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참여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발렌타인데이 폐지, 호주제 폐지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서명받기 활동에 참여, 광화문 촛불 시위 등 비폭력적 항의 시위나 집회 참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터넷상 토론방의 참여(예 : 리플 달기), 신문 독자 투고, 방송의 시사 토론에 전화 참여, 환경단체, 인권단체, 지역사회참여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체계적인 차이의 발견 뿐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일관된 경향성 파악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7개의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여 scree plot을 사용하여 <표 7>과 같이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A는 환경단체, 인권단체 참여, 요인 B는 서명받기, 집회참여, 요인 C는 인터넷토론, 신문투고이다. 요인 A는 시민단체 참여, 요인 B는 개인 수준의 참여, 요인 C는 언론매체 참여로 재구성하였다.

<표 7> 사회참여 요인분석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참여 정도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여의 형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않음과 동시에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요인 C(인터넷 토론, 신문투고) 언론매체 참여 형태가 다른 참여의 형태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요인 B(서명받기, 집회 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참여를 동반하는 개인 수준의 참여 형태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시민단체에 참여(요인 A)하는 것이 개인 수준의 참여(요인 B) 및 언론 매체 참여(요인 C) 정

리나라 정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할수록 정치기능 조직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시민사회발전에 있어 시민 단체 참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8〉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참여 정도

	학교수준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F	Sig
요인 A (시민단체 참여)	중학교	1.01	.11	.007	1.008	.316
	고등학교	1.02	.12	.009		
요인 B (개인 수준 참여)	중학교	1.85	.28	.018	27.042	.000
	고등학교	1.72	.34	.026		
요인 C (언론매체 참여)	중학교	1.79	.28	.017	3.333	.069
	고등학교	1.73	.29	.022		

참여 관련 요인 중 학교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 수준의 참여($F=27.04$, $p=.00$)이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직접 참여 노력을 필요로 하는 참여 형태에 많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중심의 교육 때문에 참여의 기회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의 관계

중·고등학교 학생의 정부 관련 기관과 언론의 신뢰 정도와 사회참여와의 실질적인 관계 정도 파악을 위해 상관관계(Correlation)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9>에 정리했다.

〈표 9〉 상관관계 결과

	요인 1 (정부 관련 기관의 신뢰)	요인 2 (언론 매체의 신뢰)	요인 A (시민단체 참여)	요인 B (개인 수준의 참여)	요인 C (언론 매체 참여)
요인 1 (정부 관련 기관의 신뢰)	1				
요인 2 (언론 매체의 신뢰)	.458(**)	1			
요인 A (시민단체 참여 중요성 인식)	-.006	.046	1		
요인 B (개인 수준의 참여)	-.065	-.119(*)	-.053	1	
요인 C (언론 매체 참여)	-.168(**)	-.111(*)	.030	.204(**)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1과 요인 2의 관계, 요인 B와 요인 C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상관관계 수치가 .2 이하로 상관관계가 약하다. 구체적으로 요인 2(언론 매체 신뢰)와 요인 B(개인 수준의 참여)는 -.119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요인 1(정부 관련 기관의 신뢰)과 요인 C(언론 매체 참여)는 -.168, 요인 2(언론 매체의 신뢰)와 요인 C(언론 매체 참여)는 -.111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한편, 요인 1(정부 기관의 신뢰)과 요인 2(언론 매체의 신뢰)는 .458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요인 B(개인 수준의 참여)와 요인 C(언론 매체 참여)는 .204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 참여 간의 상관관계는 약하지만, 사회적 신뢰 내의 요인들, 예컨대 정부기관의 신뢰와 언론 매체 신뢰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맨의 “참여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퍼트남의 “(결사체에) 가입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뢰는 공감적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는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사회구성원들이 신뢰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더욱 관련되어 참여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신뢰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Putnam, 1995a),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주민 간의 규범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Putnam, 1995b). 이처럼 사회참여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사회적 신뢰는 다시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구성원들의 사회자본을 증가시

키고 이것이 시민성 향상에 기여하는 상보적인 개념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의 시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간의 관계를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해성(1998)은 개인들 간의 사적인 신뢰가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집단 내부의 호혜성과 규범이 집단 간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보편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는 이차적인 관계로 확산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V. 결론(사회과 교육에의 시사점)

시민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구성원의 자질이므로, 개인적 속성보다는 사회 생활을 통해 형성하는 관계 중심으로 시민성을 측정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의 관점 혹은 비판적 관점에서 시민성을 바라보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성의 관계적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론자들 역시 자발적 결사체의 원동력이 구성원들 간의 유대관계 즉 신뢰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부기관과 언론매체를 포함한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고, 사회참여 역시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는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신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역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 역시 약함을 말해준다. 콜맨과 부르디외의 논의처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신뢰가 가장 핵심적 요건이며, 사회적 신뢰를 통해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거나 혹은 사회참여를 토대로 신뢰가 활성화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의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신뢰의 강화가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제공하며, 공동체의 덕목과 전통의 흡수를 통해 ‘좋은 시민’(good citizen),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민교육 및 사회과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정치 신뢰와 사회신뢰의 인과관계 방향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연구에서 정치로부터 사회 신뢰로 인과관계가 흐른다고 밝힘으로써 정치불신의 해소가 사회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Brehm & Rahn, 1997; Newton, 1999). 또한 불신의 제도화, 즉 불신을 가정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함으로써 공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김해성, 19986) 이를 위해 사회적 신뢰 특히, 정치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강화해야 하며, 교사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 혹은 내용을 다룸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이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성이 사회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현상적이고 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성을 양성하기 위해 사회관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거나 혹은 그러한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인 시민적 자질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교과서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학교 공동체 생활 관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실천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회들을 실제 사회와 교과 내용 구성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표 및 가치에 대한 공공담론을 실천하는 그리고 목표를 실천하는 매개체로서의 사회참여와 신뢰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과정 참여뿐 아니라 경제과정에서의 참여, 교육·대중매체의 제도예의 참여, 시민단체 참여의 중요성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개인적 선택을 집합적 참여로 결합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봉사활동의 기회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 시민성의 지나친 강조로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을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Wade & Saxe, 1996), 사회에 대한 무관심,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는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회적 신뢰의 정도가 높아져야 공익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 연대의식, 사회적 책임성과 의무감이 양성되며, 이를 통한 참여적 태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시민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장(場)이 봉사활동을 통해 제공되어질 수 있다. Perry & Katula(2001)과 은지용(2002), 성공회대(2002)의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참여활동(의식), 공동체의식, 관용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국가정치 체제, 학교 등의 제도적 여과장치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의식을 높여나가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인(2003). 시민성 함양 방안으로서 청소년 봉사활동지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 교육*, 42(3), 185-210.
- 김원태(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 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 49-88.
- 김태준(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2003-15-1.
- 김해성(1998). 신뢰, 법치주의,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논총*, 3, 151-165.
- 박찬웅(1999). 경쟁의 사회적 구조, *한국사회학*, 33, 789-817.
- 성공회대학교(2002). *제3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 대회자료집*. 서울: 성공회대학교.
- 손봉호(1998). 시민성의 특징. *손봉호 교수 회갑기념 논문 선집*, 197-221.
- 유재원(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 정책학회보*, 9(3), 23-43.
- 은지용(2002). *청소년 봉사활동 반성 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승종(2001). 참여를 위한 실천적 시민교육 방안, *시민교육연구*, 33, 293-310.
- 이종렬(2000). 시민교육의 정체성 위기와 딜레마, *시민교육연구*, 30, 259-279.
- 추정훈(1993). *공동체 형성 논리에서 본 사회통합교육*.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종덕(2000). 미국 시민교육의 전통과 쟁점. *시민교육연구*, 31, 345-368.
- 최현섭(1999). *참여시대를 선도하는 사회교육의 방향과 과제*. 1999년도 학술대회 주제 발표문. 한국 사회과 교육학회.
- Bourdieu, P. (1986). The form of capital in Richardson, J. E.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Press.
- Box, Richard C. (1998). *Citizen Governance: Leading American Communities to the 21st Centrie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Butt, R. F. (1988). *The Mor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Goals for Civic Education in the Public's third century*. CA: Center for civic education.
- Cogan, J. J. (2000).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Kogan page.

- Colman, James. (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nover, P. J. & Searing, D. S. (1994).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Study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I. Budge & D. McKay (ed.), *Developing Democracy*. London: SAGE Publication.
- Engle, S. H. & Ochoa, A. S. (1986). A Curriculum for Democratic Citizenship. *Social Education*, 7.
- Gross, R. & Dynnesson, T. E. (1991). *Social Science Perspective on Citizenship Education*. NY: Columbia Teachers College.
- Gunsteren, H. van. (1994). Four Conceptions of Citizenship. In Bart van Steenberg (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London: SAGE Publication.
- Mibrath, Lester W.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2nd ed.). Chicago: Rand McNally.
- Newman, F. M. (1989). Reflective Civic Participation. *Social Education*, 53, 357-360.
-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ippa No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NS (2002). *Social capital: The challenge of international measurement*.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Parker, W. C. (1989). Participatory Citizenship: Civics in the Strong Sense, *ocial Education*, 53, 353-354.
- Parker, W. C. (1996). *Educating Democratic Mind*.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erry, James & Katula, Michael C. (2001). Does Service Affect Citizenship? *Administration & Society*, 33(3), 330-365.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5a).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664-683.
- Putnam, Robert D. (1995b).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Savage, Tom & Armstrong, David G. (1996). *Effective Teaching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NJ: Prentice-Hall, Inc.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 IEA.

Wade, Rahima C. & Saxe, David W. (1996). Community Service Learning in the Social Studies: Historical Root, Empirical Evidence, Critical issue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4(4), 331-359.

• 논문접수 : 2006년 4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6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6년 5월 24일

ABSTRACT

The Soci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Eun-A Park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quir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soci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s low and the correlation value between soci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is low. If the social trust is fundamental elements of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we must prepare the citizenship education for improving the social trust.

Key Words : democratic citizenship, social capital, social trust, social participation